오늘의 말씀 – 금 (출 8:25-32)

25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26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27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28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29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30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31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32 그러나 바로가 이 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본문 이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애굽 사람들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리이다.”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나를 위해 간구하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파리 떼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 때에도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적용

파리 떼를 견디지 못해 바로가 타협을 해왔습니다. 광야로 갈 것 없이 애굽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지체없이 거절했습니다. 바로와 타협하는 것은 바로에게 용기를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만이 바로를 이기는 길임을 모세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27)

타협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타협에서 좋은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가 바로와 타협을 했더라면, 모세도, 바로도, 이스라엘 자손들도 우선은 다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는 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 모세는 말씀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바로는 그렇게 타협 없이 말씀 위에 서있는 모세를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파리 떼가 떠나가자 바로는 다시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왕이면서도 속이고, 거짓말하고, 말 바꾸며 변덕을 부리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지위는 높을지 모르지만, 처량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말씀의 원칙을 떠나면, 누구나 바로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의 세상에서,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모세가 얼마나 더 아름답고 귀하게 보이는지요!

기도

타협하면 하나님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살게 하옵소서.

묵상을 통해 삶의 원리를 알고 원칙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신실하게 본향을 향해 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옵시고, 아가페회 어르신들 더욱 강건하게 하옵소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 위에 힘을 더하여주옵소서.

(내일 말씀: 출 9:1-12)